

# 이탈리아 경제와 중소기업 소개

1. 이탈리아 경제의 양면성
2.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찬반론
3. 이탈리아 산업클러스터의 기능
4. 한국에의 시사점

# 1. 이탈리아 경제의 양면성

- 피사의 사탑에 비유되는 경제

- 저성장, 국가부채, 정치불안정, 행정비능률, 탈세
- 낮은 국가 경쟁력 : WEF 42 위, IMD 40위  
WB 영업환경 적합도 73위

- 세계 제 8 위 경제력·수출국가

- 유럽 제 2 제조업 국가
- 개미군단 중소기업이 경제의 원동력, 최고급 제품 생산
- 풍요한 의식주·생활환경과 풍부한 문화 유산

# 주요 부문별 특징

- 국가부채
- 노동시장
- 교육
- 금융시장
- 행정, 사법, 정치
- 지하경제와 부패

# 점증하는 국가 부채

- 국가부채 규모: GDP의 127%(약 2조 유로)
  - 이자지출 GDP의 5.5%(한화 120조원 규모, 국가예산의 10.7%)
- 사회복지, 의료, 교육비가 전체 예산의 60%
  - 전 국민 연금화, 의료 보장제, 국가 재정 지원 교육
- 긍정적인 면
  - 민간분야 부채 건전: GDP의 125%(기업 83, 가계 42)
  - 가계 많은 자산 보유(가처분소득의 8.8배), 부동산 시장 안정
  - 국가 부채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 의존

# 경직된 노동시장

- 노동권 과도 보호
  - 이혼보다 어려운 해고: 15인 미만 기업 예외
  - 파업 신성시
- 비정규직 도입(2003)으로 노동시장 불안정
- 노사정 합의(1993)로 임금안정 유지
- 고용 정책: 견습직, 여성, 고령자 취업 지원

# 좋은 교육 여건과 낮은 교육열

- 좋은 교육여건

- 국·공·사립대학 교육비 67% 국가가 부담(등록금으로 13% 정도 커버)
- 대학 차등, 입시 없음
- 박사과정은 학비 무료 및 월 1,000 유로(150만원) 지급

- 낮은 교육 수준

- 25-64세 인구중 최종학력 중졸자 44.3%
- 실업계 고교 진학자 비율 53.4%(나머지 인문, 과학, 예술계 진학)
- 30-34세 대졸자 분포 19%(선진국 평균 30%)

# 폐쇄적인 금융시장

## • 비신용 사회

- 비효율적 은행서비스(지연, 비용)
- 높은 이자율 (스프레드)
- 현금 선호
- 영세 은행 난립: 은행 수 740개(매출 관련 5대 은행이 53.5%, 50개 중규모 은행이 35% 점유)
- 자본시장 협소: 소수 제조업 기업만이 상장

## • 반면

- 은행의 활동이 가계 장기 주택 모기지 대출(전체 용자의 1/3)과 기업 사업자금 대출에 집중: 자산 대비 용자 비율 62.2%
- 은행에 대한 국가 보조 전무

# 비능률적 사법, 행정과 정치 불안정

- 재판 지연

- 계약 분쟁 소송 평균 소요기간 : 1,200일
- 재소자 42% 재판 계류

- 행정 비능률

- 관급 사업 지불 지연: 6개월에서 4년 반
- 책임의식 부족, 그러나 전문화

- 정치 역할의 한계



# 지하 경제와 부패

## • 지하 경제규모

- GDP의 16.3-17.5% (탈세, 암 노동):
- KNBE는 독일, 프랑스의 두 배로 추산(GDP의 21%)
- 세무당국, 사업장 부당거래 지적 비율 32.8%
- 불법 생산활동 포함 시 GDP의 35%까지 추정
- 노조측은 탈세 방지 요구

## • 부정 부패: 투명도 72위(규모 약 600억 유로)

## • 범죄 경제

- 마피아 활동 규모 GDP의 7-8%(중양은 추산)
- 시실리 상공인 매달 보호료 500-2,000 유로 납부

## 2. 이탈리아 중소기업 찬반론

- 중소기업의 역할

- 오랜 역사를 가진 장인, 공방제도가 모태
- 50-60년대 경제발전의 주축
- 70년대 이후 대기업의 경직성 보완
- 산업 클러스터의 통합 기능

- 중소기업의 비중

- 전체 기업 수(446만)의 99.9%, 고용의 81.1%, 부가가치의 69.6%(한국 99.9%, 86.8%, 47.4%)
- 극소 기업이 95.1%(독일, 프랑스, 영국과 차이)

# 이탈리아 기업 규모별 기업 수와 비중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2010)

	고용인원 기준	매출액 기준	기업 수	비중
극소기업	10명 미만	200만유로 이하	4,241,909	95.1%
소기업	50명 미만	1천만 유로 이하	193,605	4.3%
중기업	250명 미만	5천만 유로 이하	21,770	0.5%
중소기업			4,457,284	99.9%
대기업	250명 이상	5천만 유로 초과	3,707	0.1%
총 계			4,460,891	100%

# 주요국 기업규모별 기업 수, 고용, 부가가치 비중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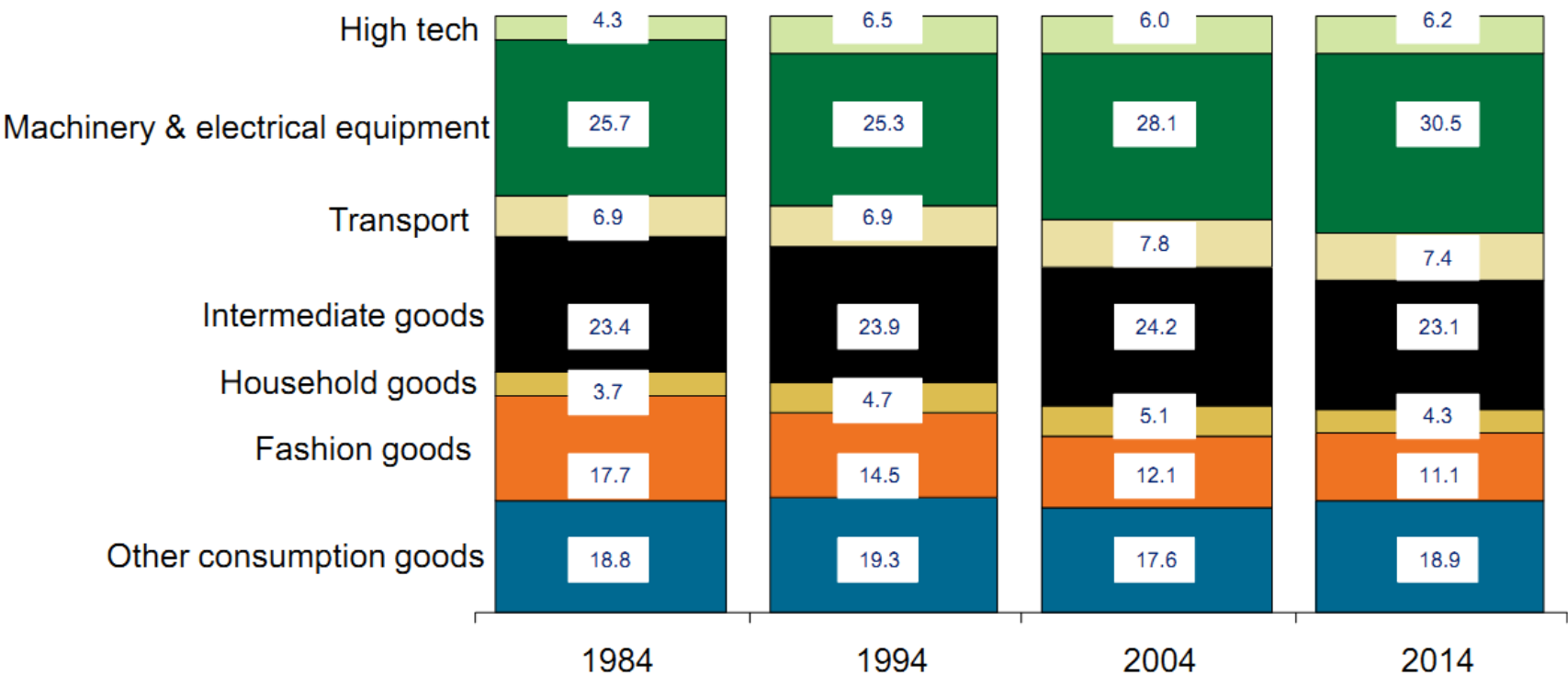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2013)

	극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b>기업 수 비중</b>					
이탈리아	94.6	4.8	0.5	99.9	0.1
독일	83.2	13.7	2.9	99.5	0.5
프랑스	93.1	5.8	0.9	99.8	0.2
영국	89.5	8.6	1.5	99.6	0.4
EU 평균	92.2	6.5	1.1	99.8	0.2
<b>고용 비중</b>					
이탈리아	46.5	21.4	12.3	80.2	19.8
독일	19.2	23.0	20.6	62.8	32.2
프랑스	27.8	20.2	15.8	63.8	36.2
영국	20.5	18.6	15.1	54.2	45.8
EU 평균	29.6	20.6	17.2	67.4	32.6
<b>VA 비중</b>					
이탈리아	29.4	22.7	16.2	68.3	31.7
독일	14.9	18.4	20.1	53.9	46.1
프랑스	26.3	17.4	15.2	58.9	41.1
EU 평균	21.2	18.5	18.4	58.1	41.9

# 제조업 분야 구조

- 기업 수 : 487,000 개 (전체의 10.9%)
- 종사자 : 4,730,000 명 (전체의 26.9%)
- 기업 규모별 기업 수 비중 : 극소기업 81.6%  
소기업 15.9%, 중기업 2.2%, 대기업 0.3%
- 기업 규모별 종사자 비중 : 극소기업 23.4%  
소기업 30.9%, 중기업 21.5%, 대기업 24.2%

## The evolution of Italian manufacturing structure (sales at constant prices)



Source: Intesa Sanpaolo – Prometeia

# Export excellence and leadership

Italy – 2010 World Export Ranking	Number of Products	Value in USD billion
First	249	59
Second	334	60
Third	350	54

Note: The ranking is within the 5.517 world manufacturing.

Source: Fortis-Corradini Index, Un Comtrade, ISTAT, Fondazione Edison Analysis

# 중소기업 발전 요인

- 15인 이하 소기업(약 85%) 노조 간섭 적음
- 유연성, 전문화, 근면성
- 직업 귀천이 없는 천직의식
- 향토 가까이 살며 일하려는 기본 마인드
- 클러스터내 기업간 경쟁에 따른 부단한 혁신  
및 갑을간 오랜 신뢰적 협력 관계
- 해외 시장 진출 정신: 중소기업 수출 몫 54%



# 중소기업의 약점과 강점

## • 약점

- 규모 경제불리, 저 생산성 성장 한계, 가족기업 경쟁 기피, 이해·정실 관계, 비상장 소유·경영 미분리로 저 자본, ICT·혁신 활동 부족, 고수익 자본집약산업 취약 : 규정 미 준수, 저임금 지급, 탈세, 암 노동, 경쟁력 저하, 가업 승계 감소, 중소기업 약화 추세

## • 강점

- 소규모 전통적 계승 발전으로 변화에 높은 유연성, 전문화로 최고급품질 제품 다양하게 생산, 틈새시장에 높은 경쟁력, 가족기업이 단순 모델 같지만 강한 기업가 정신이 작용, 경제의 중추적 역할, 위기의식에 비공식 혁신 지속, 지역에 기반 협력업체와 최선의 관계

# 대립되는 입장 (1)

- 중소기업은 저성장의 원인?

(비판)

능력주의 제한, 무능력자 과도 보호, 독일 모델 추구 주장, 서비스 분야 4-500만 고용기회 상실

(옹호)

중소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 탈 지방화 영미화 상장 다변화는 이탈리아 모델이 아님, 장점적 가치 제고, 상장은 투기 목적, WEF 평가는 자의적

- 기업은 규모가 커야 하나?

(비판)

일자리 창출 제한, 저 생산성, 해외진출 곤란, 리더십 부족, 경쟁회피

(옹호)

수백만 기업 보유는 자랑이지 불행이 아님, 이탈리아 중소기업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많은 신제품 출시, Made in Italy 제품에 주력 전략 중요, 제품 고급화와 다품종 개발, 브랜드 구축, 해외 틈 시장 진출 중요

# 대립되는 입장(2)

- 중소기업은 탈세, 규정 비 준수 의존?

(비판)

탈세, 암 노동 정당화는 잘못, 불공정 경쟁 경제자유 결여로 이어져 혁신, 고용창출 기대 곤란, 규정 증가는 규정 망 회피 유도, 가족기업 우선시

(옹호)

탈세 등 주장은 탁상공론, 회계사에 일임 탈세 곤란, 높은 세율 이자 부담 도전 감수, 종업원과 동업자 의식, 여론 76% 기업 신뢰, 영업환경 조성 선행 필요

- 중소기업에 교육 부족?

(비판)

문제 해결 평생능력 교육 미흡, 준법정신이 강한 리더십 부족

(옹호)

학교 교육과 현실간 차이, 실용적 교육도 중요, 소기업주 경험 지식 축적

# 이탈리아인을 바라보는 시각

- The Economist지: 비판론과 유사, 개혁 강조
- 중국인: 유연적, 창조적, 결정 미룸
- 브라질: 지역조직차원 완벽, 열정적
- 화란: 외국어 부족
- 독일: 감정적, 낙관주의, 덜 믿음직함
- Praxi Alliance: 북유럽보다 더 기업가적, 어려움 극복 능력, 유연적
- 종합 견해: 매사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not serious/  
책임의식 부족, 전체적으로 신호등 고장 난 교차로 상태

# 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기업 지원 재원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  
- 성장 잠재력, 생산성,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여성 창업 지원
- 불공정으로부터 보호 및 조세 감면
- 금융 접근 용이화
- 지원 자금의 84%가 지자체 통해 지원

# 3. 이탈리아 산업클러스터의 기능

## (산업클러스터의 특징)

- 특정 제품·생산 라인에 특화
- 클러스터 내 기업간, 기업과 지역기관(행정, 은행, 대학, 무역협회 등)간 네트워크
- 근접성으로 인한 기업간 높은 협력(기술이전)과 경쟁의 신비스런 결합 및 경쟁의 혁신 유도
- 기업간 폭넓은 네트워크는 규모경제 촉진
-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 기업의 재무적, 경제적 성과 제고와 높은 EU 역외 수출 성향

# 입법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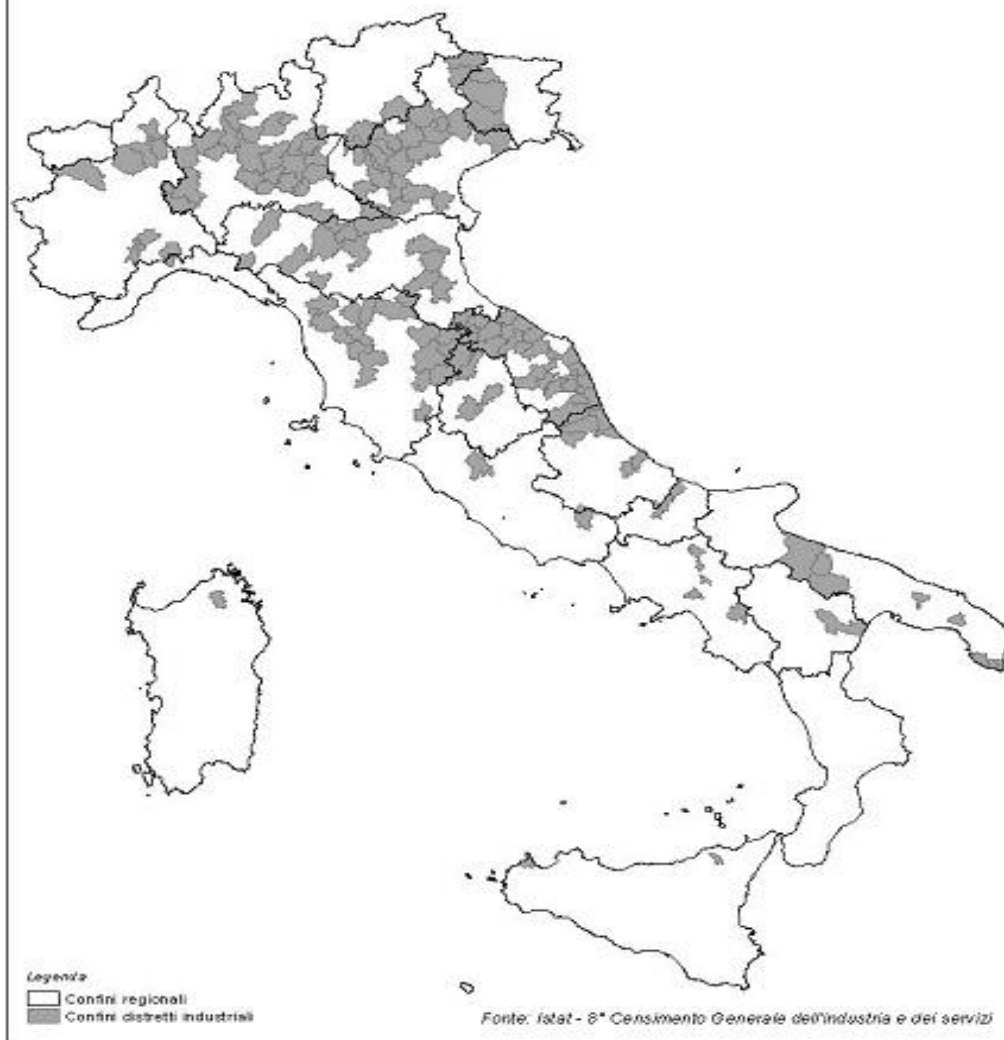
- 1991년 최초 입법
  - 주 정부에 클러스터 지정, 정책수립 권한 부여
  - " 기업 수/주민 수, 생산적 특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 으로 클러스터의 개념을 정의
  - 산업부가 관련 지표 제시토록 규정
- 관련 지표 제시(1993년 법)
  - 생산 특화 지수: 특화 피고용자 수/제조업 전체 피고용자 수
  - 중소기업 고용률: 전체 대비 중소기업에의 특화 피고용자 수
- 주 정부에 클러스터 지정 자율성 부여(1999년 법)
  - 관련 지표 유연적 적용 및 비 제조업 분야로 확대
  - 따라서 주 별로 클러스터 크기, 성격 등 차이

# 클러스터의 규모 및 종류

- 20개 주 정부 지정: 198개(2010년)
  - 섬유·의류 45, 기계 34, 가구·건축자재 32, 농식품 28, 가죽·신발 20, 귀금속 3, 악기 2, 기타 19, 비 제조업 15
  - 특징적 분야: 모직, 편물, 실크, 모자, 탭·발브, 안경, 의자, 칼·가위, 대리석, 포장기계, 단추, 콤파스, 저울, 알콜음료, 커피, 치즈,
- 경제개발부 분석: 138개(2010)
  - 285,000개 기업, 150만 명 종사, 866억 유로 수출, 제조업의 1/3 비중
- Intesa San Paolo 은행: 143개(수출 동향 정기 조사)
- Il Sole 24 Ore 경제지: 103개(2012.8-2013.1간 실태 조사)



Cartogramma 1: Distretti industriali 2001





# 특징적 클러스터 예

- 완벽한 체인: Gallatese(섬유의류), Brianza(가구)
- 제품·기계 체인: Biella(모직), Carrara(대리석)
- 대기업과 수평적 결합: Firenze(핸드백),  
Mantova(양말, 스타킹)
- 세계 시장 lead: Cusio(탭·발브), Belluno(안경)
- 명품 제조: Vibrata(루비통, YSL), Arezzo(Cartier)
- 직업훈련학교, 연구소, 대학과 협력: 다수
- 다수 중국인 진출: Prato(섬유), Manzano(의자)

# 최근 클러스터 변화

-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많은 클러스터에서 기업 수와 고용이 감소
  - 클러스터의 유용성에 문제 제기
- 저가 제품경쟁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혁신을 통한 제품 품질 고급화 및 해외 시장 확대
- 생산성·판매력 강화, 고도 숙련 인력에 의존
- 전략적 연대 부족, 국내시장 협소
- 네트워크 계약 확산: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제품개선·증명, 기술혁신, 시장개척, 환경)

## 4. 한국에의 시사점

- 이탈리아, 세계시장 lead 중소기업 전문분야 무수

- 중소기업이 수평·다원적 구조에서 발전(우린 수직·통합적), 전문적·유연적

- 특히 비 High-Tech 분야(우린 전자 등 쏠림 현상):

- 우리 전통, 경공업 산업 등에 적용, 특화 가능? (저 자본으로 창업)

- 이탈리아 일부 고급 기술 중국에 이전 현상 주목: 우리의 노력은?

- 철저하게 품질 향상, 다양화, 유연화 적기 공급에 주력

- 간접적인 지원 정책: 고용창출, 직업교육 훈련/숙련직 양성:

- 우리도 직업훈련 확대 가능?

- 이탈리아 제조업의 강점

- 중소기업가의 자생적, 창조적 기업가 정신: **우리와  
차이는 무엇인가?**

- 근로자의 직업 귀천이 없는 천직의식 문화

- 향토생활과 실업계 교육 선호: **우리 향토 생활 지향,  
직업훈련 확산, 천직의식 정착 가능?**

- 클러스터의 자연적 특화와 협력·경쟁 유발: **우리 적용?**

## • 이탈리아 경제 시스템의 강점

( 우리 국민의 불안: 노후, 교육비, 의료, 일자리 )

-전 국민의 연금화: **우리 가능(조세 문제)? 언제?**

-직업 안정 보장: **우린 어느 정도? 어떻게?**

-교육비 재정 지원: **우리도 가능? 어느 정도?**

-의료 보장제: **우리에게 필요성 있나?**